

“생리휴가 무급화 반대” 95%

업종노조 사무직 여성 5천6백명 조사

94

4.21

사무직 여성의 95.2%가 정부의 생리휴가 무급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전국업종노동조합이 최근 산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,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등에 소속돼 있는 사무직 여성 조합원 5천6백24명을 대상으로 ‘정부의 생리휴가 무급화’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, 83.6%가 ‘여성노동조건이 열악한 우리 현실에서 폐지되어선 안된다’고 응답했고, 11.6%는 ‘생리시 업무장애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폐지해선 안된다’는 입장을 보였다.

이에 비해 ‘더이상 여자만의 보호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지돼야 한다’거나 ‘있으나 마

나 하기 때문에 폐지돼도 상관 없다’는 각각 1.6%에 지나지 않았다.

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할 때 가장 큰 문제점(복수응답)으로는 ‘생리통이 심한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지게 된다’(65.8%), ‘다른 휴가도 점차 줄어들 것’(45.9%), ‘모성보호의 후퇴’(39.3%), ‘월차 등 다른 휴가를 써야 해 임금 총액이 줄어든다’(32.7%) 등을 꼽았다.

한편 ‘정부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폐지 움직임’에 대해서도 83.5%가 ‘아직은 평등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’는 입장을 보였고, ‘적당한 시기다’라고 보는 경우는 6.3%에 불과했다.